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미분획 Heparin 투여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에 관한 연구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 A common But Underdiagnosed Syndrome)

김민주\*, 박세훈, 안태훈, 신익균, 방수미, 조은경, 신동복, 이재훈, 양선미, 김유진, 김정곤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내과학교실, 혈액종양 내과, 길병원 심장센터

**배경:**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HIT)는 Heparin-dependent IgG antibody가 매개되어 발생하며 통상 혈전성 질환이 동반된다. 또한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HIT)나 Heparin-dependent IgG antibody가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는 낮으나 임상적으로는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분획 heparin을 사용한 관상동맥 질환 환자 군을 대상으로 HIT의 유병률과 이 질환에 대한 임상적 인지도를 알고자 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02~2003년도까지 가천의과대학교 심장센터에서 급성 관상동맥 질환으로 Unfractionated heparin(UFH)을 사용했던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환자들은 입원 기간 중에 최소 2회 이상의 CBC를 시행 했으며, 초기 검사상 혈소판 수는 모두 정상 이었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혈소판 수치를 재검하였다. 다른 원인이 배제된 혈소판 저하증의 경우에 우리는 HIT를 의심하였다. 또한 우리는 현재 치료에 임하고 있는 임상들이 immune-mediated HIT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가를 보기 위해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 및 혈액검사 정리하였다.

**결과:** Unfractionated heparin(UFH)을 사용한 874명의 환자 중에 272명(31.1%) 입원 후 혈소판 수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58명(6.6%)은 검사 초기에 이미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5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균 UFH 사용 기간은 6일(사용기간: 1~41 일)이었으며, 62명의 환자(11.1%)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다.

96시간 이상 UFH를 투여 받은 442명의 환자 중에, 51명(11.5%)의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현되었다. 장기간 UFH를 투여 받은 환자 중에 16명(3.6%)이 hematology consultation을 하였으며, 30명의 환자(6.8%)에서 HIT를 의심하였고, 이 중에 단 한명의

환자에서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로 진단하였다. 본 병원이 3차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HIT에 대한 어떤 혈청학 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결론:** 이상으로 보아 본 연구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후향적 분석의 제한점을 감안하더라도 UFH를 투여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흔히 발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인식이 나 대처가 제한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POEMS 증후군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의 성적

홍용삼\*, 신현춘, 나임일, 이근욱, 윤탁, 송은기, 김동완, 임석아,  
김태유, 윤성수, 허대석, 방영주, 박선양, 김병국, 김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목적:** POEMS 증후군은 신경병증(polyneuropathy), 장기종대(organomegaly), 내분비병증(endocrinopathy), 감마병증(M protein), 그리고 피부변화(skin change) 등의 증상을 종합하여 기술한 일련의 증후군이다. 본 연구는 POEMS 증후군의 임상 양상과 현재 치료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요법의 성적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7년부터 2003년까지 POEMS 증후군으로 진단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가 10명(67%), 여자가 5명(33%)이었으며 중간 나이는 49세였다. 환자들의 의무기록과 검사기록들을 검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성적:** 신경병증은 15명 모두에서 관찰되었고(100%), 장기종대는 14명(93%), 내분비병증은 12명(80%), 단클론감마병증은 9명(60%), 피부변화는 14명(93%)에서 관찰되었다. 장기종대는 림프절 종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종대가 9명, 간종대가 8명에서 관찰되었으며, Castleman 병과 동반한 경우가 6명이었었다. 내분비병증의 경우 12명 모두에서 갑상선기능저하를 동반하였고(100%), 피부변화는 색소침착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종은 10명(66%)에서 관찰되었으며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가 발견된 경우는 12명(80%)이었다. 치료는 15명 모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그 중 4명은 cytoxan이나 melphalan과의 병합요법을 시행하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감마단백의 감소, 부종의 감소, 장기 종대 감소 등의 임상증상의 호전으로 평가하였는데, 15명 중 첫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을 보인 경우는 5명(33%)에 그쳤고 10명은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임상 증상이 악화되었다. 2차 치료로 스테로이드가 8례에서 다시 사용되었고(4례에서는 cytoxan이나 melphalan과 병합), thalidomide를 사용한 경우도 2례 있었다. 2차 치료에 대한 반응은 증상의 유지만 가능하였던 경우가 6례, 증상의 악화는 4례였다. 그 중 3명은 사망하였는데 1명은 갑작스런 심실세동으로, 2명은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전체 환자의 2년 생존율은 62.3%였으며 중간 무병기간은 10.2개월이었다(1.3~28.3개월). 감마단백의 여부, 골수내 형질세포 유무, Castleman 병과의 동반,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였는지의 여부는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POEMS 증후군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진단이 용이하지 않으며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하다. 현재의 스테로이드 치료법 외에 다른 적극적인 치료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